

“누정의 한자 현판 번역해 현장 비치해야”

전남대 대학원 이강수씨 주장 ‘전남 누정·원림과...’ 논문서 체험·교육 등 문화공간 변용도

대부분 한자로 돼 있는 누정과 원림의 현판을 한글로 번역해 비치하는 등 관람객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 대학원 문화재학 박사과정에서 재학중인 이강수 씨는 최근 발표한 ‘전남지방의 누정·원림과 문화재로서 개선 방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씨는 광주열사문화복지재단이 마련한 ‘문화·문화 예술 우수논문 발표 포럼’에서 몇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방향을 강조했다.

사실 누정은 누각과 정자를 포괄하는 말로, 누정이 자리한 곳은 풍광이 뛰어나다. 누정 인근의 경물을 끌어들이 주변 전체를 만든 것을 원림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원림 또한 여느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관을 자랑한다.

누정과 원림은 전남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 가운데 하나다. 선인들의 정신적 의미와 가치가 투영된 귀중한 문화재다. 문인들은 글을 매개로 우정을 나누었고 학문을 논했다. 호남의 문화를 관통하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누정과 원림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누정과 원림은 ‘박제된 문화재’로서만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면이 없지 않다. 문화재 이용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단선적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씨는 “대부분의 누정에서는 누정제영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연구자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며 “더 많은 이들이 누정의 자료를 이용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누정 자료에 대한 번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는 누정의 현판에 대한 번역을 강조했다. 번역 자료가 현장에 제공되어야 방문한 이



누정은 전남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 가운데 하나다. 사진은 담양 식영정.

들에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 전남은 고려, 조선시대 외에도 개항 이후와 20세기에도 누정 건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동수가 쓴 ‘전라도 지방의 누정과 보성 열선루’ (2005)에 따르면 전남에는 누정이 445개소가 있다. 그 가운데 개항 이전에 건립된 것이 159개소, 개항 이후의 것이 286개소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누정은 여전히 한문 현판이 내걸려 있어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 씨는 스마트 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해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제시했다. 국립박물관에서 스마트 폰 스캔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QR 코드를 스캔해 누정에 걸린 시문을 이해한다면 더 좋은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씨는 문화재 이용 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경관(景観)’의 문제를 꼽았다. 이 씨에 따르면 대부분의 누정과 원림들은 문화재 단체로 정부, 종중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호’라는 관점에만 치중된 탓에 수목이 누정과 원림 앞에서 펼쳐져 경관을 볼 수 없는 곳도

있다. “문화재 주변의 수목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관을 볼 수 없게 막는다면 누정과 원림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를 잃게 하는 것이다. 누정과 원림의 시야를 방해하는 나무들은 이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씨는 경치를 막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면 누정과 원림의 안팎 경관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이용의 변용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 보존의 적극적인 개념과 맞닿아 있다. 이 씨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누정과 원림의 의미를 알아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와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교육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 답사, 체험 및 공연, 축제, 행사 등 통해 정적인 문화재를 동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자 위의 콘서트, 판소리 공연 등을 펼치는 방법도 하나의 예라고 덧붙였다. 또한 각 지역 축제와도 연계한다면 문화재로서의 누정과 원림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BS광주총국은 방송 80년을 맞아 특집뉴스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복합쇼핑몰·지방소멸 위기 등 심층 진단

KBS광주총국 방송 80년 특집 21일 ‘뉴스7’ ‘뉴스9’ 선보여

KBS광주총국이 방송 80년을 맞아 특집 뉴스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를 만난다.

KBS광주총국은 21일 ‘KBS광주 방송 80년-시청자와 함께 100년’을 주제로 ‘뉴스7’과 ‘뉴스9’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특집 뉴스는 5·18기념문화센터 옥상에 세워진 야외 특설 세트에서 진행된다.

또 광주·전남 시·도민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광주시장·전남지사 출마 예정자들의 지지율과 복합쇼핑몰 입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 KBS뉴스에 바라는 점을 보도한다.

KBS복합·순천방송국과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AI와 에너지 산업, 생태·관광의 상징적인 장소를 현장 연결해 현황과 전망을 짚어본다.

뉴스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심층 진단하고 광주총국에서 파견한 도료특파원을 연결해 일본의

지방소멸 해소 노력을 비교 분석한다.

40분 동안 진행되는 뉴스7에서는 KBS광주 총국 8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100초다큐’, 광주·전남의 대표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최경천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한기다크’,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Z 뉴스’가 펼쳐진다.

KBS광주총국은 또 남도를 집중조명한 프로그램도 특집으로 선보인다.

지상파 로컬방송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남도의 문화와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남도지오그래피’는 15년간의 방송을 모아 21일부터 24일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6시까지 특별 방송하고 25일 오후 2시30분에는 제작진과 시청자들이 화상 연결을 통해 방송 뒷이야기를 전달한다.

25일 오후 7시40분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청률 8~10%, 유튜브 조회도 1회 평균 5만 건 이상을 기록한 ‘남도지오그래피’의 성공 요인을 통해 지역방송의 가치와 역할, 활로를 탐색하는 특집 프로그램 ‘당신의 인생 우리의 역사’를 방송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

이어령의 ‘육성 유언’...tvN ‘내가 없는 세상’ 오늘 방송

‘시대의 지성’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이 건넨 마지막 인사가 안방을 찾는다.

tvN은 ‘이어령의 내가 없는 세상’을 17일 오후 7시 20분 방송한다.

지난달 별세한 고인이 2019년부터 2년여에 걸쳐 세상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한 2천500분의 영상을 55분 길이로 편집해 보여준다.

막춤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막문화’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컬처의 상관관계,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에서 만들어진 ‘반도성’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 등 이 전 장관의 생각이 담긴다. 이 전 장관은 생전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생각



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글보다도 생생한 내 육성의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년심판’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시청시간 2주 연속 1위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에서 2주 연속으로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했다.

16일 넷플릭스 시청 시간을 공개하는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TOP) 10’에 따르면 ‘소년심판’은 3월 둘째 주(7~13일) 시청 시간 2천594만 시간을 기록해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소년심판’은 첫 주인 2월 넷째 주(2월 21~27일)에는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3위를 기록했고, 3월 첫째 주(2월 28일~3월 6일)에는 1위에 올랐다. ‘소년심판’은 소년법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담당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연합뉴스

공동체 문화유산 호남 향약자료 발간 눈길

한국학호남진흥원

‘부용정’ ‘양과정’ 2권 발간

향약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위해 만들어진 향촌의 규약을 말한다. 유교적 가치관에 토대를 둔 향촌의 자치규범이다. 공동체 문화유산인 호남의 향약자료는 우수한 수준을 자랑한다.

지역 관련 향약 자료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명)은 ‘호남한국학 향약자료집 광주향약1- 부용정 등’과 ‘호남한국학 향약자료집 광주향약2- 양과정’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2021년 사업 결과물로 발간됐



으며 원문 이미지뿐만 아니라 해설문, 탈초문, 번역문까지 수록한 점이 특징이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먼저 ‘광주향약1-부용정’ 등은 향약을 맨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부용정 자료 등이 실렸다. 광주향약을 처음 실시한 김문발과 이선제의 향약 시행 관련 자료 외에도 원래의 향약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광주의 면단위에서 향약이 시행됐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수록됐다. 이들 자료는 광주사람의 문집에 수록돼 있는 향약서문을 발췌하고 번역한 것이다.

‘광주향약2-양과정’은 광주향약 자료 가운데 가장 잘 남아있는 양과동정 향약자료로 구성했다. 1500년 전후에 창설된 양과동정 향약은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모두 불탔지만 1604년 복구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향약 시행 자료와 건물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드문 경우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

한편 천득명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향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계속적인 향약 자료를 발굴 및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